

익산시, 도시생태 복원 '속도'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 동산동 다래못 생태계 복원사업 보고회

익산시가 도시생태 복원과 시민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확충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31일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동산동 다래못 생태계 복원사업 보고회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보건복지 위원, 생태 전문가, 마을주민 대표, 관계부서 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생물서식지 및 자연과 시민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 환경조성에 머리를 맞췄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함라면 도시생

태축 복원사업'의 지리적 특성 및 수리부양, 황조롱이, 수달 등 서식이 확인된 주변 생태조사를 기반, 훼손된 생태축 연결은 물론 생물서식지 개선 및 확대로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풍부한 생태계 거점의 공간으로 제시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잠점마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반영하여 기억의 공간 등 치유의 공간을 구성하여 타지역 사업과 차별화된 생태 명소로 구성했다.

이어 '동산동 다래못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전문 및 의견수렴 또한 이뤄졌다.

물 순환 구조개선을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멸종위기종Ⅱ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처를 복원하는 동시에 인근 인화공원과 연계하는 데크로드와 시민 편의시설, 생태학습 시설 등을 11월까지 조성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은 자연 생태계 기능 향상 및 생태복원 뿐만 아니라 주민 및 지역 방문자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자연생태 복원을 넘어서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는 환경교육장과 생태 학습장으로 변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하천 환경사고 대응방안 마련... 공무원 안전대책을"

박철원 익산시의원, 5분 발언

31일 열린 제 254회 익산시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질오염 등 하천 환경사고 대응방안 수립 및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는 매년 약 1.36억의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만 2건의 하천 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제작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투입된 공무원들은 두통, 폐부종과 출혈 피부염 등 심각한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 7월 경북 예천에서 하천 수색작업을 하던 체모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한다"며 "익산시도 매년 발생하는 하천 환경사고 방제작업을 위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박 의원은 "하천 환경사고 방제작업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 전문방제업체에 맡기고 이와 더불어 익산시에 적합한 '수질오염사고대응 세부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항 공사비 지원

군산시는 각 가정에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옥내급수관이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에서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하며, 수도 설비의 노후 및 부식은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되므로 개량이 필요하다.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총 48세대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잔여 사업비 소진 시까지 공사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을 1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2000년 이전 준공주택 거주 세대 2순위, 기준 중위소득 45%~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3순위로 최대 200만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군산시는 지난 31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오는 9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 관의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구암동 현대 아파트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일원, 오식도동 한성빌라 우스 일원, 미장동 택지구 일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 시,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홍보도 병행,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2024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추진

농촌지역 주민 기초생활 수준 높이고 농촌활력 도모

군산시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육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임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1단계)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며, 사업비 193억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공간 조성, △중심

지·거점지 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운영, △지역역량 강화 등이며, 지역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총사업비 50억원으로 회현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1단계)사업과 서수면·육서면·나포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배후마을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와 거점지

간, 문화·복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내실 있는 농촌 발전과 주민 화합,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과 도시가 다 함께 누리는 활력 농촌 군산을 만드는 데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에서 군특화계로 지원된 사업 중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통합추진 체계가 효율적이며 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분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읍면동 긴급재해복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소길영 익산시의원, 5분 발언

익산시의회 소길영 의원(양곡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은 지난 31일 열린 제 254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 시 읍면동 긴급재해복구체계 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해 피해를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아닌 선제적 대응이 부족한 인재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을



중앙행정의 역량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난 재해 시 단계별 긴급 복구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은 대다수 단원이 다른 조직과 중복되어 활동 및 동원을 강제할 수 없어, 조직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므로 우리 시에 맞게끔 개선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 일차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해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읍면동에 매년 산실적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장에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생각하지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도서구입 정책지원금 추가 지원... 9월부터 시행

익산시가 9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책 구매 시 20% 할인혜택을 준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이로움 충전 인센티브 10%와 도서구입 정책지원금 10%를 지원해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 시 총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서점 자체 할인까지 포함하면 온라인보다 더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어 대형인터넷 서점들에 위축된 지역 서점의 가격경쟁력은 확보하고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준다.

익산시 인증 지역서점 27개소에서 책 구매시 1인당 최대 2만원(총구매한도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결제일 기준 다음 달 25일에 일괄 지급된다.

지역서점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익

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san.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 밖에도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한 도서 우선구매,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 보는 바로복 서비스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서점은 이제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책을 매개로 여러 문화를 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서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 청년들, 군산기계공고와 협약 체결

군산시는 지난 29일 청년들(군산시 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과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 교육부 한국경제재단의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사업 모델 총청-전라권역 거점학교로 선정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5개년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취·창업 전문가 상호 지원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재학

생 및 졸업생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진행 시 인프라 교류 및 홍보 협조 등이 기대 된다.

청년들은 평소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네트워크 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으로 고졸자 취업 확대와 지역인재들이 군산지역에 정착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